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치부(4-5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년부(1-3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초등부(4-6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중등부(BYM Jr.)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고등부(BYM)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한어중고등부(CIM) / 온라인 예배
11:3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예배
9:15AM(청소년) & 11:30AM(어린이)
- BETHEL GRACE CHURCH / 온라인 예배
10:30AM
- 日本語 礼拝 / 온라인 예배
1:30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us.cts.tv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0부 예배 | (토) 5:00PM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15AM 3부 예배 | 11:3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0, 1, 2, 3부/히브리서 13:4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5:17-26

말씀 Message 0,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43) 결혼과 섹스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예수 믿는 자처럼!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찬410/새310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찬219/새540장), 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코로나를 통해 배우는 교훈 1

Lessons Learned from Coronavirus 1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일 년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얻게 되는 유익도 없지 않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큰 교훈은 매사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평범한 상황에서는 본질과 비본질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늘 점검하며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포츠 경기, 음악회도 열릴 수 없고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모임인 교회도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긴 고민을 하지 않고 이미 구축되어있는 온라인을 사용해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늘 원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 보며 현장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며 지나왔던 한 해였다고 믿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지만 없을 때 아쉬운 사람이나 어떤 존재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 말과 함께 따라오는 말은 “있을 때 잘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딱 ‘예배’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되었고, 다시 현장예배가 열리면 최선을 다해 예배드릴 것을 다짐하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선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천여 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는 몰랐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밥만 같이 먹는 ‘식구’가 가족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핵 공동체가 가족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밥만 주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책임을 이행할 때 주어지는 영적 권위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녀들이 목회자의 설교만 듣다가 부모의 말씀을 듣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자”는 말을 목회자에게만 듣다가 부모에게서도 듣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30년 저의 목회를 뒤돌아 보니, 개인적으로 저희 딸이 0부 예배에 참여하면서 저의 설교를 매주 듣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일 1, 2부 현장 예배를 열면서 각 예배에 100여 명의 예배자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때 현장에 나오는 분들은 일당 백의 자세로, 1000여 명이 모였을 때보다 더욱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할 책임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배운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It has been almost a year since we weren't able to worship in person. We sigh thinking about how difficult the year has been. However, we cannot deny the benefits that we have gained as we realized many things through Coronavirus. The greatest lesson is that we started thinking about what is essential and non-essential with everything. In a normal situation, it's not easy for human to distinguish between essential and non-essential. From that context, God desires us to always examine priorities before taking action. He told us to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Since church could no longer gather as a community of faith, we began thinking about what must be done first. Along with sports games and concerts, churches were not allowed to gather. I naturally thought about what is the most essential for a church. Frankly, it didn't take long before we began utilizing already established online system to worship. I believe this is a year of realizing the importance of worship as we reflect back on worship that was always available to us in the past.

There is a saying, ‘You're not missed until you're not there’. You don't realize how much a person is missed or valued until the person is no longer there. Along with this saying, there is also “do the best while you can”. I think these fits perfect in terms of worship for believers. This was an opportunity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in-person worship and an opportunity to vow to give the best worship when in-person worship opens up.

As our online worship became our primary way of worship, it was an opportunity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worshipping with family. We see the value in worshipping with family that we didn't realize before when we were worshipping with thousands of members. Family doesn't just eat together, but we have realized that it is a spiritual community that worship together. Parental authority doesn't come just by feeding your family, but their spiritual authority is given and realized when a worship is led by them. Children had opportunity to hear from their parents, not just sermons from children's pastors. A new world opened up as children heard “let's pray” from parents, not just from pastoral staff. Personally, it was an opportunity for my daughter to hear my messages for the first time in 30 years of my pastoral ministry as she started to attend 0 worship services. Now, we will open again on Lord's Day for 1st and 2nd services to worship in-person, limited to 100 people. To those who will attend in-person worship, please come with attitude to represent one hundred members and give the holiest worship, greater than when there were thousands of people. You have the responsibility to give the most glorious worship and the privilege to apply the lessons learned from Coronavirus.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토요 0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제 43 편

결혼과 섹스
(히 13:4)

1. 목사, 스님, 신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런 이미지가 있을까요?

적용하기



2. 침소(marriage bed)를 더럽히지 말라 하면서 음행 및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경고합니다. 음행과 간음은 어떻게 같고 다른니까?

3.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했습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지혜를 정리해 봅시다.

1) _____ 는 더럽지 않다 (참고/ 골 2:23, 딤후 4:3)

2) _____ 사랑 그만하기 (창 2:24, 롬 1:26-27)

3) _____ 사랑 그만하기 (잠 5:19, 고전 7:2-5, 마 5:27-30)

4) _____ 사랑 그만하기 (마 22:39, 갈 5:24, 빌 2:8)

■ 적용찬양: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찬410/새310장)

베델 선교
선교 박람회 스케치

주님 보고 계신 곳



한 해의 시작과 함께 교회 뜰에서 선교지를 둘러 보며 선교 헌신 작정을 하던 미션의 날이 올해는 온라인 선교 박람회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박람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선교가 삶이 되고 삶이 선교가 되는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선교의 고도를 높여 함께 비상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여 1.8 사명을 가지고 내가 선 곳이 바로 선교지이며 내가 곧 선교사라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고 일반 평신도로 파송된 베델의 가정들을 통해 시작된 선교는, 성도들에게 선교적 비전을 심어 주었고 선교지를 향한 동역의 꿈을 지금도 이어 주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모습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귀한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 받는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선교지와 교회 연결, 선교사와 평신도를 연결함으로 우리의 가진 것과 선교지의 필요를 서로 연결하는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임

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온라인 선교 박람회를 통해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베델의 선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선교적 삶으로 이끄는 베델 훈련과정

베델 선교 센터에서는 세상에 보냄 받은 자로 구체적인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선교 기초 과정인 코람테오 베이직 (7주 과정), 베델 BAM 훈련 (12주 과정), 그리고 단기선교 훈련 과정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의 통로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 과정을 제공합니다. 단기선교를 떠날 시간도 없이 빠르게 살아가는 성도님에게 본인의 재능과 선교지의 필요를 연결하여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구체적으로 돕는 BAM Connection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실버미션:**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교지, 저렴한 비용의 맞춤형 선교입니다.
- **도시선교:** 대도시의 소외된 주민과 어린이를 돌보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합니다.
- **노방전도:** 집마다 찾아가거나 개개인을 만나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 **의료:** 건강 검진, 약 처방, 치과, 한방, 간호 등으로 현지들을 치료합니다.
- **셀예배:** 선교지 가정교회의 셀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 **아동:** 어린이 사역과 여름성경학교(VBS)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 **안경:** 현지인들이 잃어버린 시력을 찾도록 검안과 안경 제작으로 섬깁니다.
- **건축:** 현지 선교사를 도와 교회와 선교 시설의 건축을 돕습니다.
- **미용:** 머리카락 손톱 등을 정리합니다.
- **음식:** 음식 준비를 통해 선교팀원과 선교사를 섬깁니다.
- **사진 & 미디어:**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현지 아이들에게 사진을 찍어 나누어 줍니다.
- **햇불대화:** 워싱턴 D.C. 집회를 통해 미국 의회에 탈북자의 상황을 알립니다.

베델 선교
선교 박람회 스케치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리

온라인 선교 박람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인 헌신관입니다. 베델교회가 후원하는 22개 선교지의 영상들을 보며, 성도님들의 마음에 특별한 울림이 있는 곳이 있으신가요? 당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장 값지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자들에게 문의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7월까지 온라인 선교와 리모트 선교지 11개국 중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9월부터는 직접 찾아가는 선교의 길이 열릴 것 기대하며, 10개국의 단기 선교에 동참하실 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작은 태도 변화가 지구 반대편에서 선교의 불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작은 불씨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Non-contact 온라인 선교, 리모트 선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자 선교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 명령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방 곳곳에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동참하여 보냄 받은 선교사로,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선교, 리모트 선교, 단기 선교 등 직접 선교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선교 헌금이나 선교 기도로 후원하며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베델 교회 홈페이지의 선교 헌신 작성서를 통해 주

Non-contact 를 넘어 God-contact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큰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동안 직장이나 가정 형편으로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열방을 향해 떠날 수 있는 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체계적으로 짜인 10주간의 과정을 통해 선교 훈련부터 기도모임과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줌 미팅으로 선교사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10주 동안 그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선교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2월 과달라하라를 시작으로, 베델의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2월부터 시작된 과달라하라와 베트남을 비롯, 온라인 선교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을 모집

온라인 선교일정

- 과달라하라 2월 14일(주일)-4월 17일 (토)
담당: 박지학 집사, 문의: (217)390-4107
- 베트남 2월 21일(주일)-5월 1일(토)
담당: 정재홍 집사, 문의: (248)202-0777

베델 온라인 선교 박람회 관람

2021 온라인 선교 박람회가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 ① 1월 31일(주일)부터 3월 7일(주일)까지
박람회 특별 홈페이지: missionexpo.bkc.org
- ② 3월 7일 이후 부터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 홈페이지: mission.bkc.org

Remote 선교 하이브리드 형식

소수 선교지 현장 방문

필요한 장비와 물품

선교팀원 합숙

온라인으로 선교지 일정에 맞춰 사역

Remote 선교 & BAM Connect

의료지원
 VBS보급
 언어교육
 건축지원

구체적인 사례: 의료 건축 지원

▶티화나: 피부문제 ▶K국: 센터건축

실행방안 모색: VBS 보급

▶일본:영어캠프 ▶과달라하라: 스페니쉬

Need Pool 확인: 언어 교육

▶T국 ▶캄보디아 ▶루마니아 ▶조지아

인터뷰
신임 목회자

박경철 목사



1. 베델교회에 부임하신 소감을 나눠주세요.

약 6년 전 이곳 얼바인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올 1월 한국에서 저도 베델교회 엘스에 함께 참여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베델 성도님들의 은혜를 향한 갈망을 볼때 베델교회에서 경험 할 은혜와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2.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저는 본래 음악을 평생 직업으로 갖고자 했던

음대생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태리로 가서 거기서 평생 연주자로 살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어 군 입대 8개월을 앞둔 제게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공황장애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무 심한 고통 중에 있다가 군대에 가게 되었고, 군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여 지금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저를 불러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3.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 1:1)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1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적 교회를 가까이하며 늘 사람들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교육을 받아왔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조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서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와 있는 것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를 써 내려가는 사람은 옳고 그름이 아닌, 오직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 앞으로의 비전과 각오를 들려주세요.

저는 각오를 해도 3일을 잘 넘기지 못합니다. 하하... 그렇기에 한 주 한 주 부어주시는 예배의 은혜와 매일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하는 수밖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제가 가진 비전이라고 한다면 김한요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붙잡은 마음으로 제 마음에 담아내고 싶습니다.

베델 사역
Beyond the Blue(B+B)
가정 회복 사역

여호와 라파(치료자)!!

저는 작년 사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사별 모임이라 하여 배우자를 잃은 싱글들을 위한 모임이 아닐까 생각해 잠시 주저했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눈치를 살필 만큼 여유가 없고 절박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와준 보석과도 같은 아이와 18년 동안 꿈같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사고로 갑작스레 아들을 보내고 그 충격과 슬픔에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의문들을 품은 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던 제게, 하나님은 B+B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모임은 한 번의 오프라인 만남 후 팬데믹으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는 듯했으나 줌 미팅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B+B 모임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 너에게 잠시 맡겨 두었던 나의 아들은 내 곁에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은 자를 사랑하는 남은 자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른 참가자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만 겪는 고통과 아픔이 아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아픔이 거름 되어 다른 아픔을 가진 자를 도우라는 사명도 갖게 하셨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픔을 가진 가정이 있다면 꼭 B&B

사역을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픔의 모양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아픔을 지녔다는 이유로 서로 공감하고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11)

물론 아직도 풀지 못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남아있고 때로는 그리움에 사무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고 주실 것임을 믿기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노영미 집사

* Beyond the Blue(B+B) 사역은 아픔이 있는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봄 학기는 이혼, 별거 가정을 중심으로, 가을학기에는 사별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Beyond the Blue B+B
DIVORCE Care 이혼가정 회복 세미나

- 일시: 3월 5일 - 5월 28일 (13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모임 방법: 온라인 Zoom 미팅 (ID 번호는 시작할 때 알려드립니다.)
- 등록비: \$20 (교재비)
- 문의: 한상설 장로 (949)735-8472
이관혜 전도사 (949)422-8828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셀/기도: 박경철 목사
 베델위임: 김섭리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 손용주 목사
 예심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심채플(청년): 서찬석 목사
 예심채플(청년):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오케스트라: 박정영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혜경
 오르간: 이정은, 이혜경, 박정연
 솔리스트: 최정원, 백동휘
 밴드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영아부: 윤희준 간사
 유년부: 김재은 간사, 장지혜 간사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장석영,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2021 베델 BAM 훈련

베델 선교 훈련인 '코람데오 아카데미'는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선교적인 삶이 되도록 함께 연구하는 선교 훈련입니다. 그 과정 중 하나인 베델 BAM(Business as Mission) 훈련은 비즈니스 활동으로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비즈니스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문화 속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나누는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현시대는 비즈니스를 통해 세계가 하나 되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도 비즈니스는 세계를 연결하였고, 모든 민족이 우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대도시화로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사는 지구촌이 형성되었습니다. 비즈니스는 이 다양한 민족들에게 일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통된 문화를 만들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손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비즈니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시험을 주기도 하며, 신앙과 복음을 타협하라고 부추기고 타락으로 끌어 내리려 합니다. 성공과 최고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마저 빼앗긴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는커녕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기회와 시험이 공존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BAM 훈련을 통해 다양한 영적 전투의 실체를 보고 복음의 능력을 일깨워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바꾸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봄학기 베델 BAM 기초 훈련인 1단계 훈련은 지난 가을학과와 같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총 12주 동안 진도에 맞춰 온라인 강의를 자유롭게 듣고,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에서 소그룹 활동을 갖게 됩니다. 리더를 위한 2단계 훈련은 12주 동안 선정된 책을 주별로 읽고, 주어진 스터디 가이드북을 가지고 홈스터디한 후에 매주 소그룹으로 모여 나누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지난 가을학기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전과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온라인의 장점인 장소를 초월하여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선교적인 삶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델 BAM 훈련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실 수 있으며,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CORAM DEO ACADEMY 2021 베델 BAM 훈련
 "선교적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 ▶ 일시: 3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12주간) 오후 7시 30분
- ▶ 참여 방법: 온라인 강의와 Zoom 소그룹 모임
- ▶ 문의: 박지학 집사 (217)390-4107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석(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루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명)
 *선교기관 | 나눈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베델교회 현장 예배 안내**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께 기다리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동안 COVID-19 사태로 인해 실내 현장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실외에서 토요 0부 예배를 사회적 거리를 두고 드려왔습니다. 이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가오는 3월 7일(주일)부터 주일 1, 2, 4부 예배를 실내에서 현장예배로 드립니다. 현장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checkin.bkc.org).

토요 0부예배는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계속되며 3월 7일(주)부터 본당 실내 현장예배가 시작 됩니다!

현장예배 신청 전 자가 점검을 해주세요!

-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하신 분
 - 발열 37.5 °C/ 99.5 °F 이상, 기침, 호흡 곤란 등 유사 증상이 있는 분
 - 위 조건에 있는 분의 동거가족인 경우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예배 및 각 부서 현장 예배 안내>

- 유아부 현장예배
일시/장소/인원 제한: 3월 28일 2부 예배, 본당 2층 영아부실, 10명(학부모 포함 20명)
 - 유치부 현장예배
일시/장소/인원 제한: 3월 28일 2부 예배, 식당, 12명)
 - 유년/초등부 현장예배
일시/장소/인원 제한: 3월 21일 2부 예배, 체육관, 30명(변동 가능)
 - 한어 중고등부(CIM) 현장예배
일시/인원제한: 3월 14일, 20명
 - 영어 중등부(BYM Jr. High) 현장예배
일시/인원제한: 3월 28일, 20명(7, 8학년)
 - 영어 고등부(BYM High School) 현장예배
일시/인원제한: 3월 14일, 20명(12학년) 3월 21일, 20명(11학년)
3월 28일, 20명(9-10학년) 4월 4일, 20명(9-12학년)
 - 예수 채플(청년)은 3월 7일(주일) 부터 4부 실내 현장예배로 드립니다.
 - 일본어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 모든 자녀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 * 유아부 현장 예배를 참석하시는 부모님은 1부 현장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부서별 예배에 방역을 실시합니다.

◆ **수요특별기획: 선교다큐 "불(Fire)"** 수요선교다큐시리즈 "불(Fire)"에는 마지막 제 5편이 방영됩니다.

- ① 설교: 룻4:5-6 기업 무를 자가 되자 (T국 길예평 선교사)
- ② 다큐 5편: 불의 전달자들(전도)

시청 방법: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카톡채널/베델교회 유튜브 채널
(선교 보안 관계로 두 차례 실시간으로만 방영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54차 전도폭발 기도후원자의 밤** 전도폭발 참가자들을 후원하는 기도 후원자들의 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참여 방법: 3월 2일(화) 오후 7시, Zoom

◆ **베델 BAM 훈련 모집** 훈련 등록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면을 참고해 주세요.

일시: 3월 4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재 픽업: 3월 6일(토) 오후 1시-2시, 교회 식당 앞
문의: 박지학 집사 (217)390-4107

◆ **수요특별기획 안내** 3월 10일(수)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 "베델이 간다"와 "베델큐"가 매주 수요일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베델이 간다: 베델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해드립니다.
베델 큐: 베델 성도님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신앙적 질문들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문의: 김승균 집사 (949)838-4110

◆ **니카라과 선교(온라인) 팀원 모집** 온라인으로 선교 훈련도 받고, 선교지에 선교영상편지도 보내고, Zoom 미팅을 통해 선교사님과 만남의 시간도 갖고, 토요 웹시바 기도회에서 선교영상보고도 하는 등 10주 운영플랜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선교에 팀원을 모집합니다.

일정: 3월 7일(주일)-5월 15일(토)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영어 중.고등부(BYM) 교재 픽업** 3월에서 5월까지 BYM 소모임에서 사용할 Gospel Project 교재를 미리 신청한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Drive-thru 통해 BYM Booth에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장소: 3월 6일(토) 오전 10시-오후 12시, 교회 주차장
문의: 김학남 집사(고등부) (408)806-4133, 천승현 집사(중등부) (512)947-7291

◆ **"To Be Like Jesus" 성경 속으로 GOGO!** 더 깊이 말씀을 공부하기 원하는 초등부 학생들과 Jamie 전도사가 "To be like Jesus" 교재로 Zoom을 통해 학년별로 모입니다. 코로나로 영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시기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모임 시간 (Zoom): 4학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5학년: 매주 주일 오후 5시
6학년: 매주 주일 오후 4시

문의: Jamie Kim 전도사 (714)822-7552

◆ **3월 크래프트 패키지 픽업** 교회학교 Craft Package Drive Thru 픽업 3월 한달간 주일 예배 후 사용할 크래프트 준비물들을 교회학교에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3월 6일(토) 오전 10시 - 오후 12시, 교회 파킹랏

◆ 위로해 주세요

- 故 이순희 권사님(이은숙 권사의 시모)께서 2월 10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홍재숙 성도님(김태원 집사의 모친, 김선희 권사의 시모)께서 2월 27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 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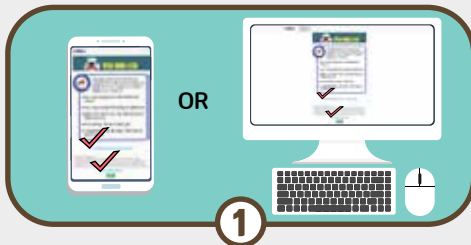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교회 현장 예배 참석 절차 안내

베델 교회 현장 예배는 베델교회 등록 교인만 가능합니다. 만약 등록 교인이 아니시라면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한 후 새가족팀의 안내에 따라 새가족 교육을 받은 후에 현장 예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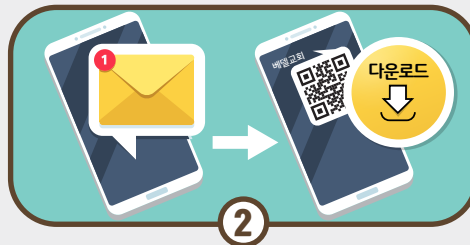
가정에서



1

checkin.bkc.org로 들어가 안내문을 꼭 확인 하시고 동의버튼을 클릭한 후 예배를 신청해주세요.

예배 신청 기간: 매주 화요일~목요일
현장 예배 신청 링크는 베델카톡채널을 통해 접속하시면 편리합니다.



2

예배 신청 몇일 후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QR코드를 다운하여 핸드폰에 저장합니다.



교회에서



1

QR 코드 확인:
문자로 받으신 QR 코드를 본당 입구 봉사자에게 제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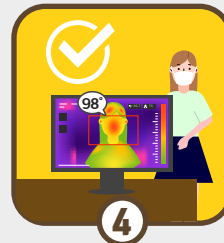
2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으로 본당 건물로 입장해주세요.



3

본당 로비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주세요.



4

열화상 카메라 앞에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체온을 확인해 주세요.
* 99도(°F) 이상의 고열이실 때는 의무실로 안내됩니다.



5

준비하신 헌금은 본당 입구에서 드려주세요.



6

예배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세요.



7

예배가 마친 후에는 예배당 앞쪽 (강대상쪽) 문을 통해 퇴장하시면 됩니다.

베델교회 실내현장 예배를 위한 방역 수칙

베델교회는 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교회
캠퍼스 전체 방역
및 소독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발열 검사

예배 사전 등록
및 QR 코드 발행

예배 좌석 지정
및 기록 관리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필수 착용,
손 소독 스테이션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Book of Hebrews (43)

Marriage and Sex

(Hebrews 13:4)

1. Is there image difference between a pastor, a monk, and a priest? Why is there such an image?

Apply to Life



2. We are warned not to defile marriage bed for God will judge the sexually immoral and adulterous. How are sexually immoral and adulterous the same and different?

3. It says to let marriage be held in honor. Let's summarize the wisdom as you listen to the message.

1) _____ is not dirty (Ref: Col 2:23, 1Tim 4:3)

2) Stop loving _____ (Ref: Gen 2:24, Ro 1:26-27)

3) Stop loving _____ (Ref: Pro 5:19, 1Cor 7:2-5, Matt 5:27-30)

4) Stop loving _____ (Ref: Matt 22:39, Gal 5:24, Phil 2:8)

■ Song in Response: I just want to be faithful to you, I know not why God's wonderful grace (#410)